

# 여성의 일상에서 '여가' 현실

문은영(연구평가팀 연구위원)

최나리(연구평가팀 위촉연구원)

## 목 차

### I. 사회변화와 여가의 의미

### II. 여성의 여가 실태 및 유형

1. 여성의 여가시간 활용
2. 여가비용 지출
3. 여성의 여가유형
4.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III. 여성의 여가 활용 만족도

### IV. 여성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 V. 맺음말

## 목 차

<표 1> 가구당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표 2> 시도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표 3> 여가활동 불만 이유

<표 4> 지역문화행사 참여만족도

<그림 1> 활동별 요일평균 여가시간

<그림 2> 유럽남녀의 여가시간활용 비율의 차이

<그림 3> GDP 대비 가계의 여가 및 문화비 지출 비중

<그림 4> GDP 대비 10년간 한국 가계의 여가 및 문화 지출비 비중

<그림 5> 분야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그림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

<그림 7> 레저시설이용 비율

<그림 8> 성별 주말 휴일 여가활동

<그림 9>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주말여가활동

<그림 10> 휴일이나 주일을 함께 보내는 사람

<그림 11> 연령별 주말이나 휴일을 가족과 보내는 사람

<그림 1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그림 13> 성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그림 14> 시도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그림 15>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비율

<그림 16> 지역별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비율

<그림 17>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림 18> 서울시민들이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림 19>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요 약>

- 본 이슈분석에서는 여성의 일상에 있어서 여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여가활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여성여가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함. 또한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참여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여성의 여가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음.
- 여성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가제약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 사회 규범적 측면에서도 비롯됨. 이러한 제약요인은 크고 작게 여성의 여가활동방식과 여가활동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왔음. 여가제약은 여성의 여가활동 범주를 제한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여가에 대한 권리에 소극적인 양상을 띄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여가가 일상화되면서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상 생활권내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주도형으로 개발된 지역문화예술행사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 행사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비용부담이 적어 지역내의 문화소외 계층의 여가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육아와 가사로 여가생활이 어려운 20~30대 기혼여성이나 고령층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여성의 여가제약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1. 사회변화와 여가의 의미

- 여가(餘暇)<sup>1)</sup>는 사전적 의미로 “일이 없어 한가로운 시간”을 의미함.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증대시켰고, 여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옴. 또한 과거 노동과 생산중심의 생활패턴에서 ‘여가’와 ‘소비’중심의 사회 환경이 우리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다가오면서 여가의 내용과 의미도 변화해 왔음. 즉 이전에는 ‘일하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가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여가 개념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2000년대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자기실현 욕구가 증대되면서 질적 차원에서의 여가시간 활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의 이러한 여가 트렌드에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이라는 용어도 함께 등장함. 여가 제약은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방해요인”을 뜻하며 여가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만족감 등을 제한하는 것임(문숙재 외, 2007: 134). 여성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가제약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 사회규범적 측면에서도 비롯됨. 이러한 제약요인은 크고 작게 여성의 여가활용방식과 여가활동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왔음.
- 한편,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여가가 일상화 되면서 특별한 장

---

1) 여가(leisure)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노동 학업 등에 종사하는 사회적 필수시간과 수면, 식사 등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으로 정의됨. 라틴어 ‘licere’는 ‘법칙적’ 또는 ‘허가받음’을 의미하며 또 다른 어원인 그리스어 ‘schole’은 자기 ‘생활공간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뜻함. 여가는 본래 물질과 무관하며 개인적 자유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정, 직업과 관련된 업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문숙재 외, 2005:16~17). 여가에 해당하는 어원들은 단지 여가가 ‘남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에 있어, ‘평화’, ‘조용함’, ‘의무 없는’, ‘자발적인’, ‘강제성 없는’상태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함.

소가 아닌 일상생활권 내에 이러한 여건마련이 필요하게 됨. 그렇기에 공공 주도형으로 개발된 지역문화 예술행사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여성의 여가 제약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이슈분석에서는 여성의 일상에 있어서 여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여가활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여성 여가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함. 또한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참여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여성의 여가 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이슈분석의 방법은 기존 통계에 대한 분석과 통계청에서 전국 3만3천 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사회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실태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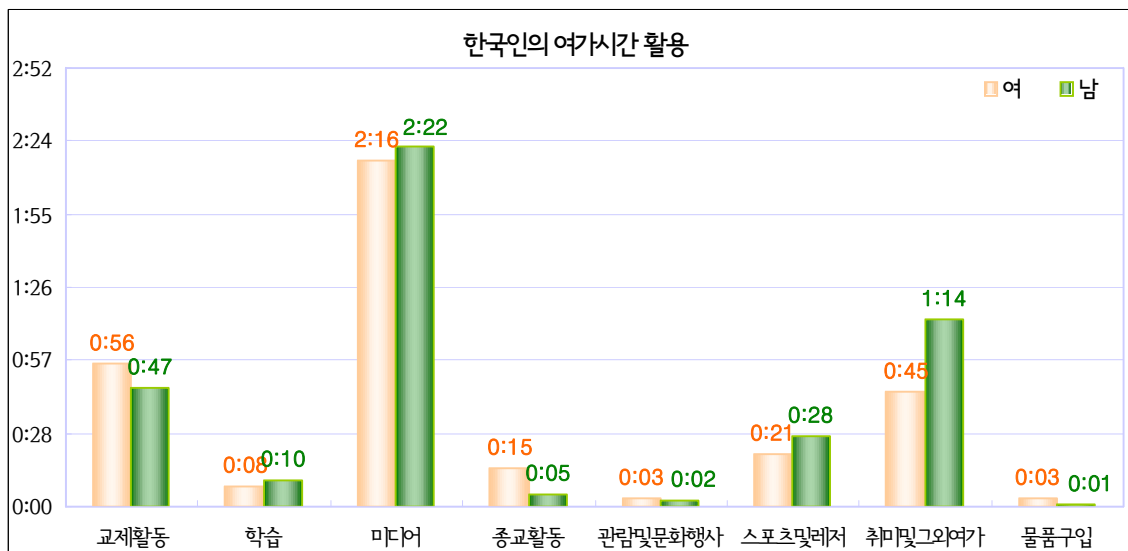
## II. 여성의 여가 실태 및 유형

### 1. 여성의 여가시간 활용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요일평균 여가시간은 4:58시간(여 4:46, 남 5:10)으로 조사됨.
  -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일요일은 1시간 19분, 토요일은 38분, 평일 9분, 요일평균 24분 정도 여가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에서는 활동별 여가의 유형을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활동’,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등으로 분류했음. 이 중 TV시청 등 미디어 활동 시간이 요일평균 2시간 19분(여 2:16, 남 2:22)으로 남녀 모두 여가의 거의 절반가량을 미디어 이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취미활동(0:59)과 교제활동(0:52) 순임.
- <그림 1>의 활동별 요일평균 여가시간을 남녀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성이 미디어활동(여 2:16, 남 2:22), 취미 및 여가활동(여 0:45, 남 1:14) 등에서 여성보다 시간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며, 반면에 여성은 교제활동(여 0:56, 남 0:05)과 종교활동(여 0:15, 남 0:05),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여 0:03, 남 0:01) 등에서 남성보다 시간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활동별 요일평균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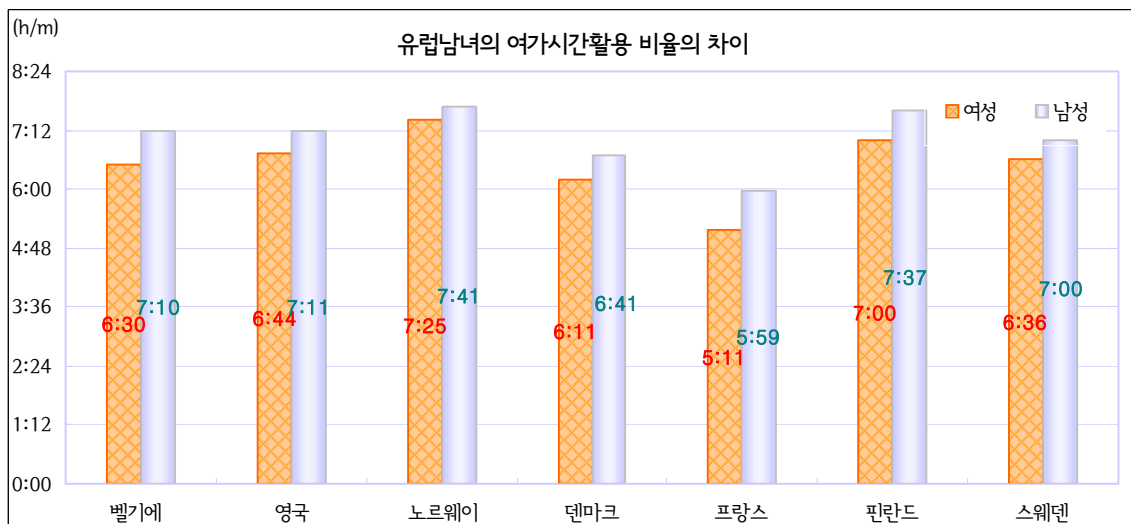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4)  
수치는 한국인의 요일평균 여가시간임.

□ 유럽 13개국의 시간 사용에 관한 유럽통계연합(Eurostat)의 ‘Time use at different stages of life(2003)’에서 유럽인의 여가시간은 하루에 평균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국제간 비교를 우리의 여가시간 활용 통계자료와 같은 수위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유럽국가들(5:35에서 7:34)이 우리나라(4:58)보다 많은 시간을 여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그림 2>를 보면 유럽의 경우에도 남녀의 여가시간이 적게는 16분에서 많게는 40여분 정도 차이가 나며, 공통적으로 남성의 여가 시간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가 활동별 시간활용 면에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는데, ‘레저’와 ‘여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사교생활’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유럽남녀의 여가시간활용 비율의 차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Time use at different stages of life-Results from 13 European countries’, Eurostat, 2003, 7, 문화관광부, 『여가백서』(2007), 재편집

## 2. 여가비용 지출

- <표 1>의 가구당 월평균 여가비 지출에서, 2006년 조사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많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월 평균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84%가 10만원 미만으로 여가비를 지출하는 한편 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가구당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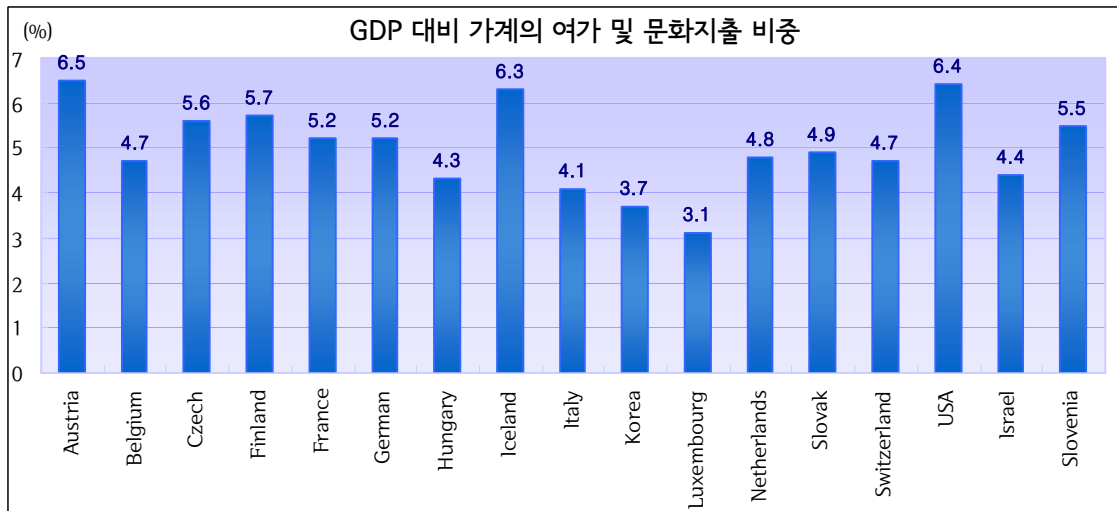
여가비 지출액	전체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3.1	84.0	51.3	43.9	27.9
10~15만원 미만	20.2	10.3	21.7	21.7	19.4
15~20만원 미만	12.3	1.9	10.6	13.4	14.3
20~25만원 미만	10.9	2.8	8.7	9.7	15.6
25~30만원 미만	5.9	0.0	3.0	5.8	9.3
30~40만원 미만	4.2	0.0	2.7	3.5	7.0
40~50만원 미만	2.1	0.5	1.1	1.2	4.1
50만원 이상	1.3	0.5	0.8	4.1	2.4

자료: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2006)

- 한국의 GDP 대비 가계의 여가 및 문화비 지출 비중은 3.7%로 OECD 28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의 2008 OECD FactBook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6.5%), 미국 (6.4%), 아이슬란드 (6.3%)가 GDP 대비 가계의 여가 및 문화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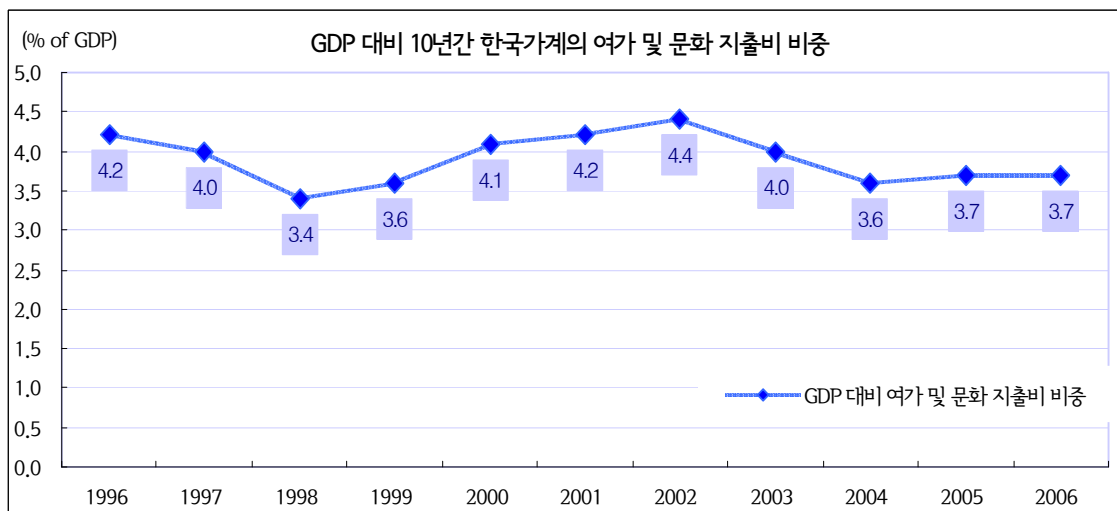
<그림 3> GDP 대비 가계의 여가 및 문화비 지출 비중



자료: OECD, 2008, "OECD FactBook"(2006년 기준 작성)

- <그림 4>에서 살펴보듯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의 여가 및 문화 지출비 비중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 2000년도에 4.1%에서 2002년 4.4%로 약간 상승세에 있다가 2003년부터는 오히려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4> GDP 대비 10년간 한국 가계의 여가 및 문화 지출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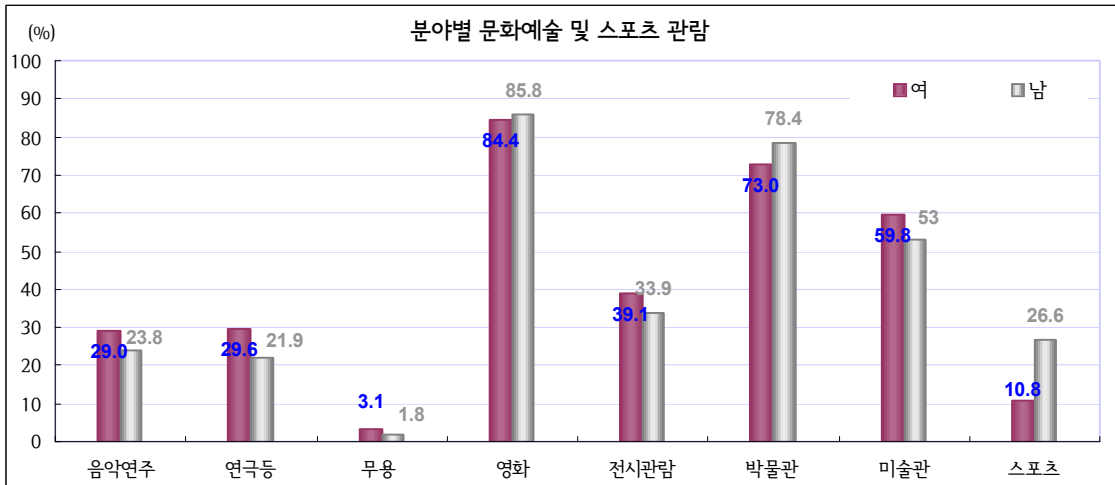
자료: OECD, 2008, "OECD FactBook"(2006년 기준 작성)

- 여가 및 문화비 지출은 제반 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이용에 들어가는 경비로 여가활동의 양적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OECD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저조한 여가 및 문화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여가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 여성의 여가비용지출은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국가경제수준과 여가시간활용, 여가활동 유형에 비추어 유추해 볼 수 있음.
  -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여가비용이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하며, 여성의 여가시간은 남성에 비해 저조하고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여가의 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지 못하고 여가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3. 여성의 여가유형

- 통계청의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55%, 남성이 53.6%로 여성의 비율이 1.4%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분야를 제외하고, 여성의 문화예술 참여는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음악·연주회’, ‘연극’, ‘스포츠’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여성보다 ‘영화’(여 84.4%, 남 85.8%), ‘스포츠 관람’(여 10.8%, 남 26.6%)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음악·연주회(여 29.0%, 남 23.8%), 연극·뮤지컬(여 29.6%, 남 21.9%), 전시장의 관람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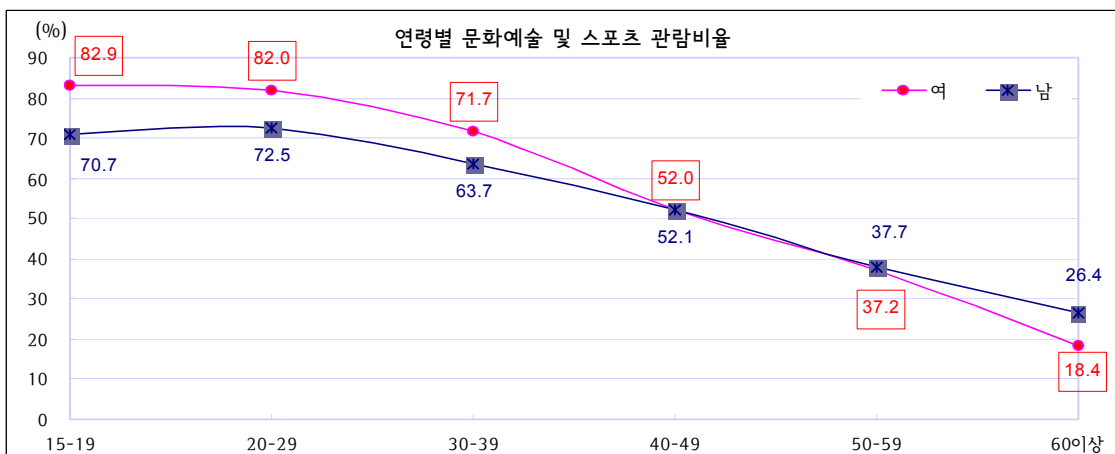
<그림 5> 분야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10대 20대에 비해서 30대 이후에 남녀 모두 급격히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30대까지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여 60대에는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고령층의 취약한 문화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그림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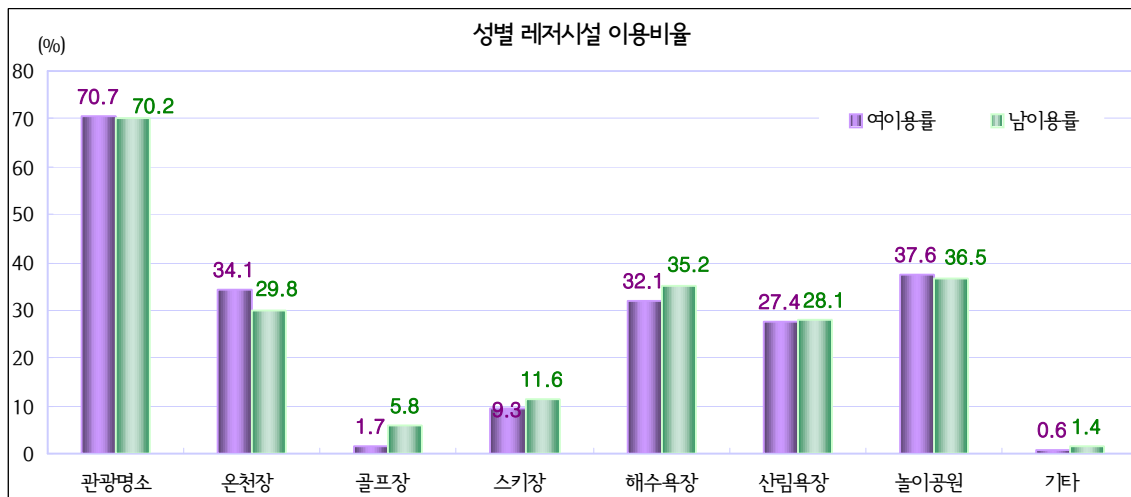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레저시설의 경우도 여성 65.4%, 남성 64%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녀 모두 '관광명소'(여 70.7%, 남 70.2%)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 '놀이공원', '해수욕장', '온천장' 순으로 나타남.

○ 레저시설 이용에서 여성의 경우 관광명소, 온천장, 놀이공원 이용률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의 경우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장 이용이 여성보다 높아 성별 간 레저시설이용에 차이가 있음.

<그림 7> 레저시설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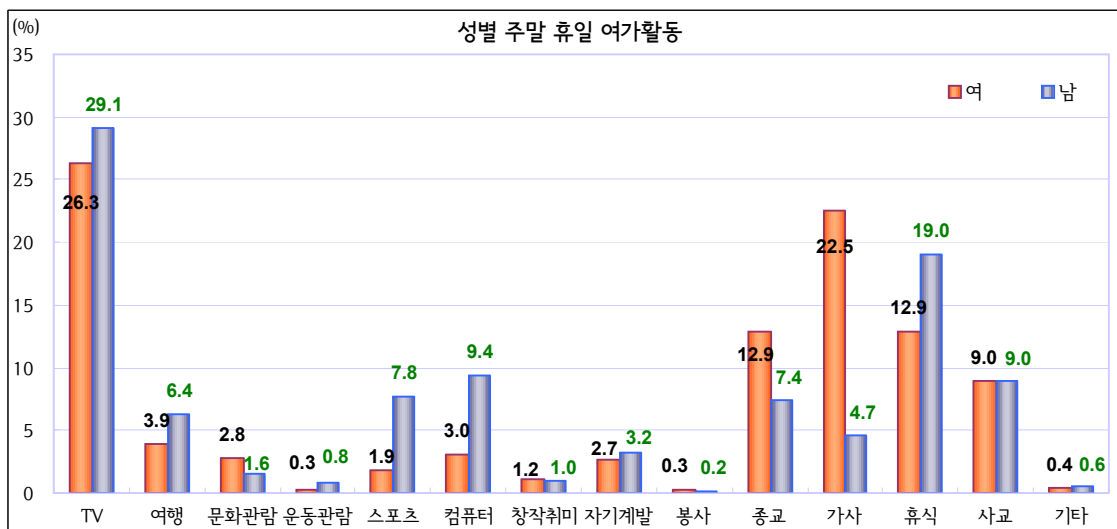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4.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TV, 여행, 문화, 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및 활동, 컴퓨터, 창작적 취미, 자기개발, 봉사활동, 종교 활동, 가사, 휴식, 사고 관련 일 중에서 주된 여가활동으로 ‘TV 및 비디오 시청’과 ‘휴식’, ‘가사일’ 등을 꼽음.

- 성별에 따른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보면 남녀 모두 첫 번째 활동으로 TV 시청을 꼽았고 두 번째로 남성은 휴식, 여성은 가사를 꼽았음. 즉 남성의 경우 'TV 및 비디오시청(29.1%)'과 '휴식(19.0%)'이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 'TV 및 비디오시청'(26.3%)과 '가사'(22.5%)가 가장 많음. 특히, 30세부터~49세까지 여성의 30%는 주말여가시간에 가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함.
-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의 22.5%가 주말과 휴일 여가시간에 가사활동을 하는데 비해, 남성의 4.7%만이 가사 활동을 한다고 응답함.

<그림 8> 성별 주말 휴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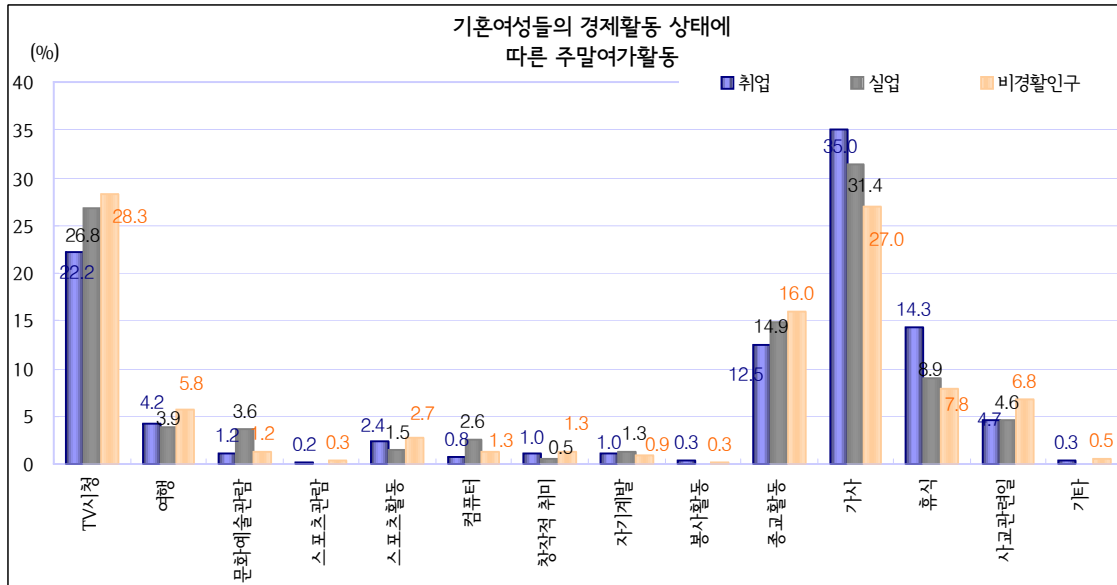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1순위응답(주된응답)분석)

- 위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에서 기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 상태별 주말여가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가 31.1%, 그 다음이 'TV 시청' 25.1%, '종교 활동' 14.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취업여성의 35%가 주말의 여가시간에 ‘가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실업여성(31.4%)과 비경제활동인 여성(27.0)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국 ‘일을 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사에 대한 이중고를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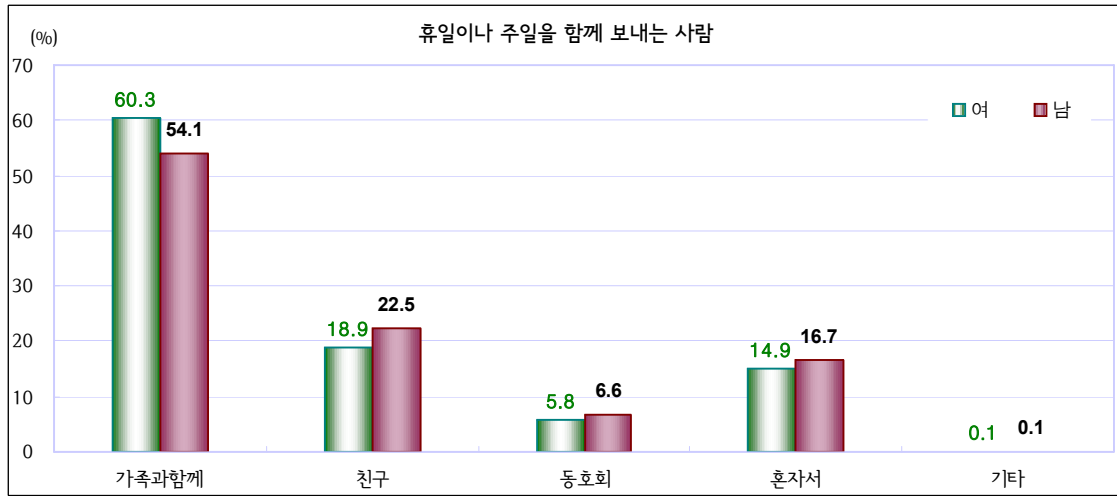
<그림 9>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주말여가활동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주말이나 휴일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남녀 모두 ‘가족’을 가장 많이 꼽음. 남성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경우는 54.1%, 여성의 경우 60.3%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족다음으로 휴일이나 주말여가활동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친구(연인) (여 18.9%, 남 22.5%) 세 번째는 혼자서 보내는 경우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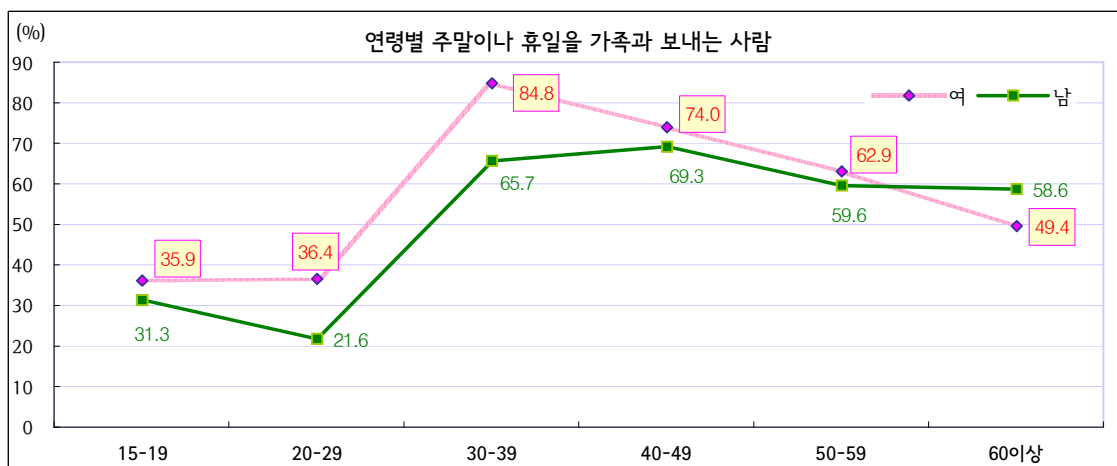
<그림 10> 휴일이나 주일을 함께 보내는 사람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까지는 남녀 모두 친구(연인)와 함께 보내는 비율이 가장 많고, 30세 이후에는 남녀 모두 가족과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84.8%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30대~40대의 남성에 비해 휴일이나 주말을 함께 보내는 대상이 가족에 국한되어 있음.

<그림 11> 연령별 주말이나 휴일을 가족과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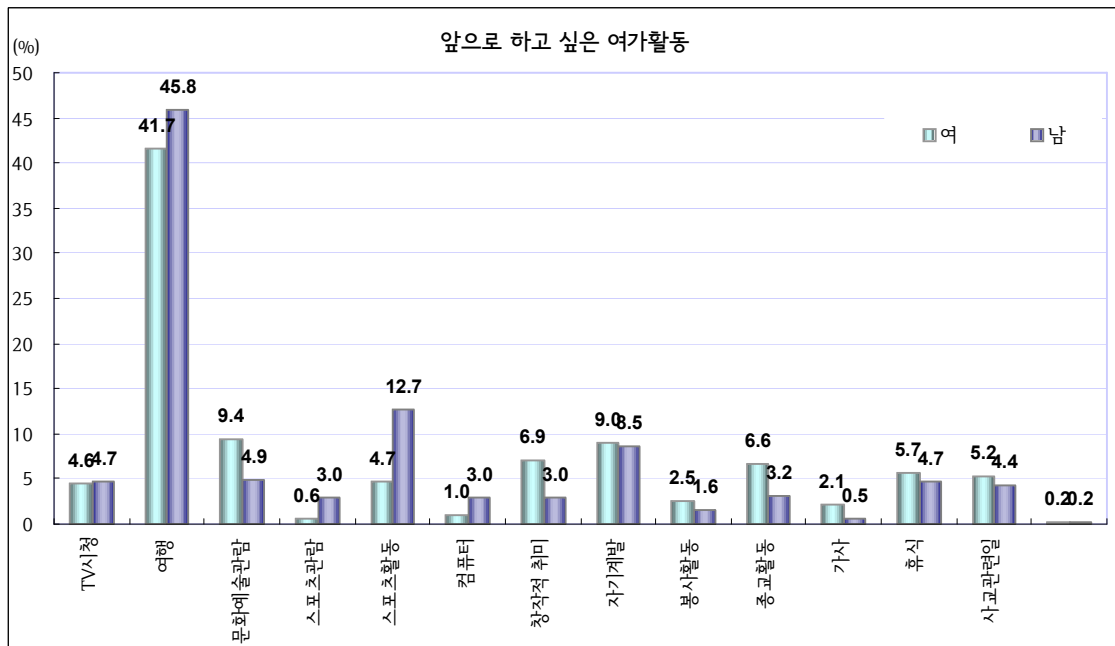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성(41.7%)과 남성(45.8%) 모두 여행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림 8> 성별 주말휴일여가활동에 나타난 현실적인 활동(여행 : 여 3.9%, 남 6.4%)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음.

○ ‘여행’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스포츠활동(12.7%), 자기개발(8.5%)을 선택했고, 여성은 문화예술관람(9.4%)과 자기개발(9.0%)을 선택함.

<그림 1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1순위응답(주된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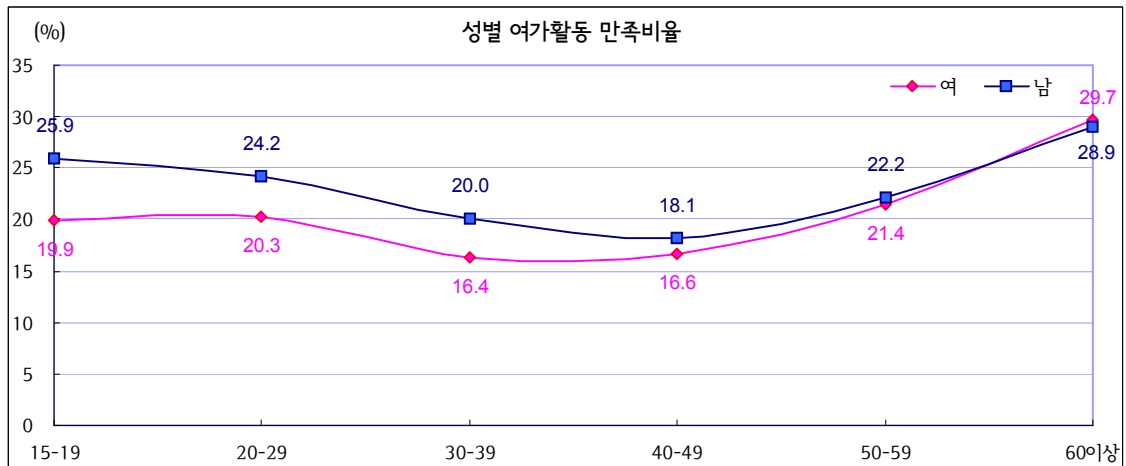


### Ⅲ. 여성의 여가활동 만족도

□ “평소 여가활동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성 20.7%, 남성 22.5% 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30~40대에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또한 여성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녀의 만족도의 격차는 10대(여 19.9%, 남 25.9%)와 30대(여 16.4%, 남 20.0%)에 크게 나타남.

<그림 13> 성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전남(25.7%), 충남(25.3%) 등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울산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대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저조했음. 남녀의 격차가 많은 곳은 광주(여 20.7%, 남 26.0%)와 제주(여 21.4%, 남 27.2%)로 나타남. <그림 14>에서 보듯이 서울지역의 경우 여성 20.4%, 남성 22.0%로 1.6% 격차가 있음.

- 다른 지역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7%)이고, 다음으로 충남(25.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지역의 여가 만족도는 전국 평균 21.6%에 비해서도 약간 저조한 2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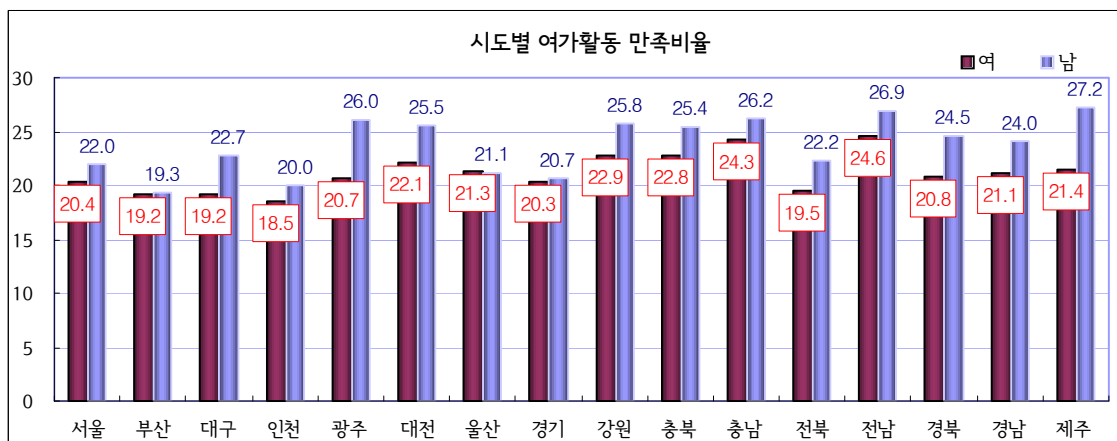
<표 2> 시도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단위: %)

	여	남	전체평균
<b>전국평균</b>	<b>20.7</b>	<b>22.5</b>	<b>21.6</b>
서울	20.4	22.0	21.1
부산	19.2	19.3	19.2
대구	19.2	22.7	20.9
인천	18.5	20.0	19.2
광주	20.7	26.0	23.2
대전	22.1	25.5	23.8
울산	21.3	21.1	21.2
경기	20.3	20.7	20.5
강원	22.9	25.8	24.3
충북	22.8	25.4	24.1
충남	24.3	26.2	25.3
전북	19.5	22.2	20.8
전남	24.6	26.9	25.7
경북	20.8	24.5	22.6
경남	21.1	24.0	22.5
제주	21.4	27.2	24.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그림 14> 시도별 여가활동 만족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여가활동불만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남녀 모두(여 58.3%, 남 58.6%)로 가장 많았고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평균에 비해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간부족'(여 23.1%, 남 26.1%)을 들었음.

○ 다만 여성의 경우는 30대, 40대에서 남성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30대 이후 여성보다 '시간의 부족'을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

<표 3> 여가활동 불만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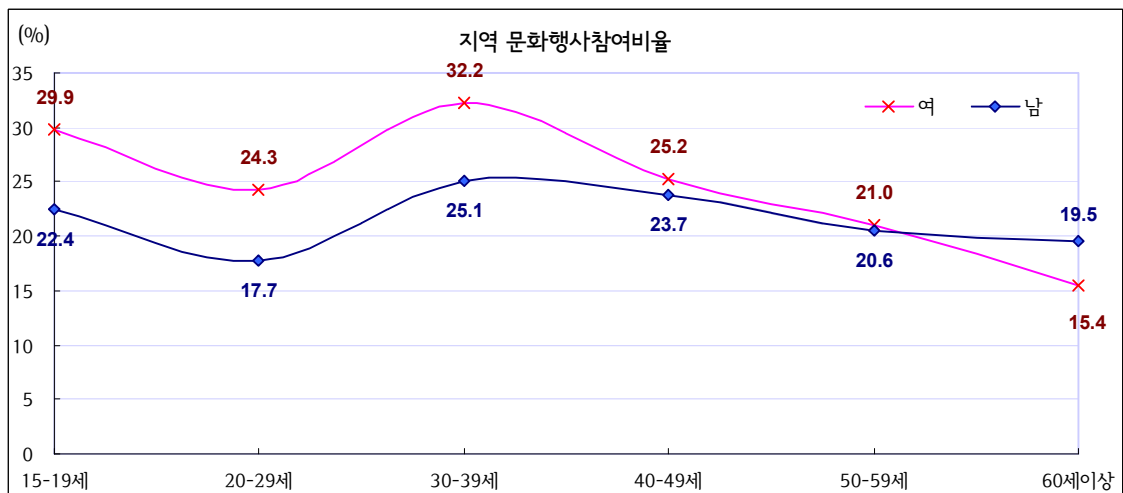
	불만이유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전체
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34.4	53.1	61.1	68.4	65.7	52.0	58.3
	시간이 부족해서	51.6	30.0	26.1	20.8	18.8	6.3	23.1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하여	1.2	3.4	3.6	2.2	2.0	1.3	2.4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5.6	3.9	1.9	1.1	1.0	0.9	2.1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부족하여	1.8	2.7	2.2	1.1	0.7	0.7	1.5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3.5	3.7	1.7	2.4	3.0	3.8	2.9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0.6	1.4	1.5	3.0	7.6	33.0	8.0
	여가를 함께 즐길사람이 없어서	1.1	1.7	1.2	1.0	1.2	1.8	1.3
	기 타	0.3	0.2	0.7	0.1	0.0	0.2	0.3
남	경제적 부담 때문에	37.0	59.2	55.7	64.8	65.9	57.4	58.6
	시간이 부족해서	50.1	28.8	30.9	24.5	20.4	9.8	26.1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하여	1.3	2.1	4.3	3.2	3.0	2.0	2.9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3.3	2.6	2.2	1.1	0.9	1.4	1.8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부족하여	1.9	1.3	1.4	1.2	0.8	1.0	1.2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4.2	3.3	2.4	1.8	3.4	4.3	3.0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0.6	0.8	1.3	2.1	4.5	22.3	4.8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1.3	1.8	1.6	1.2	1.0	1.8	1.5
	기 타	0.3	0.0	0.2	0.0	0.1	0.0	0.1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IV. 여성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여성이 24.3%, 남성이 21.8%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비교적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 참여율이 대폭 감소하고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참여율 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충북,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서울 지역의 경우도 여성의 참여율이 15.8%로 남성 12.1%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5>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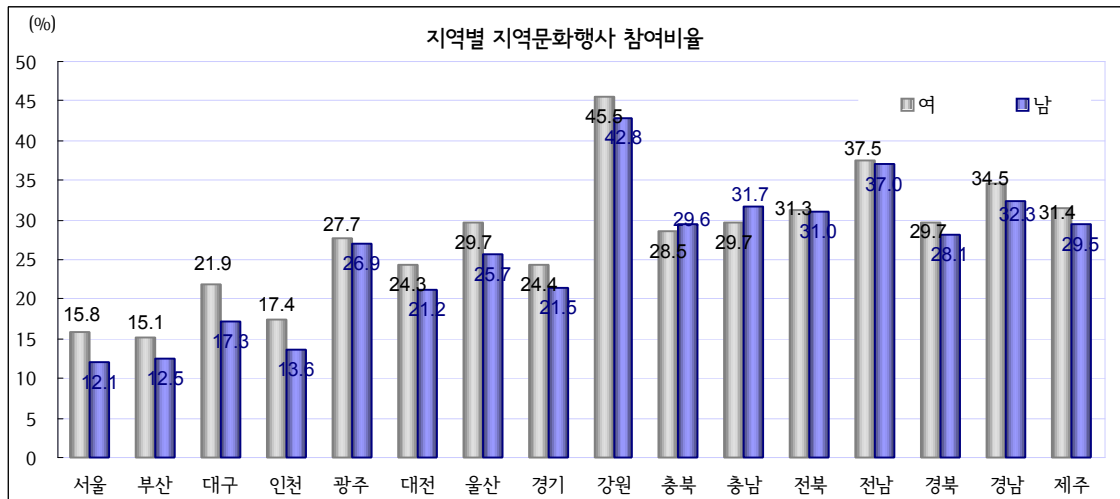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그림 16>의 시도별 지역문화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강원(44.2%), 전남(37.3%), 경남(33.5%), 전북(31.2%), 충남(30.7%) 순으로 나타남.

- 16개 시도중 지역문화예술행사참여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13.9%)이며, 다음으로는 서울(14.0%)로 나타남. 서울지역 남성의 경우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비율이 1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지역별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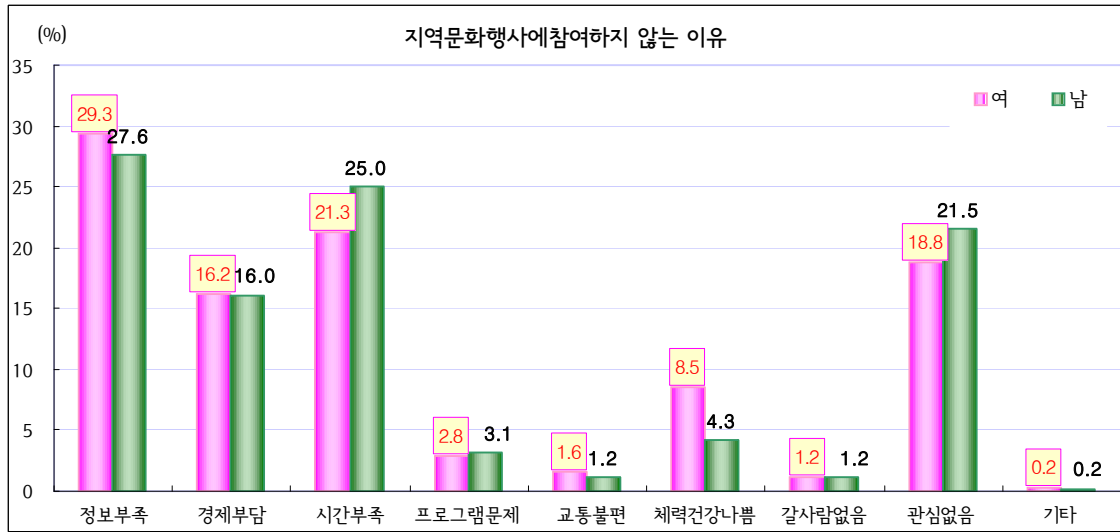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여 29.3%, 남 27.6%)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다음으로는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여 21.3%, 남 25%)로 나타남. 또한 관심없음(여 18.3% 남 21.5%)으로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마틴과 메이슨(1980)<sup>2)</sup>의 여가행동 모형에 따르면 여가활동 선택의 자원 제약요인은 시간, 비용, 공간임. 지역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이러한 요인이 비교적 적게 작용하며 정보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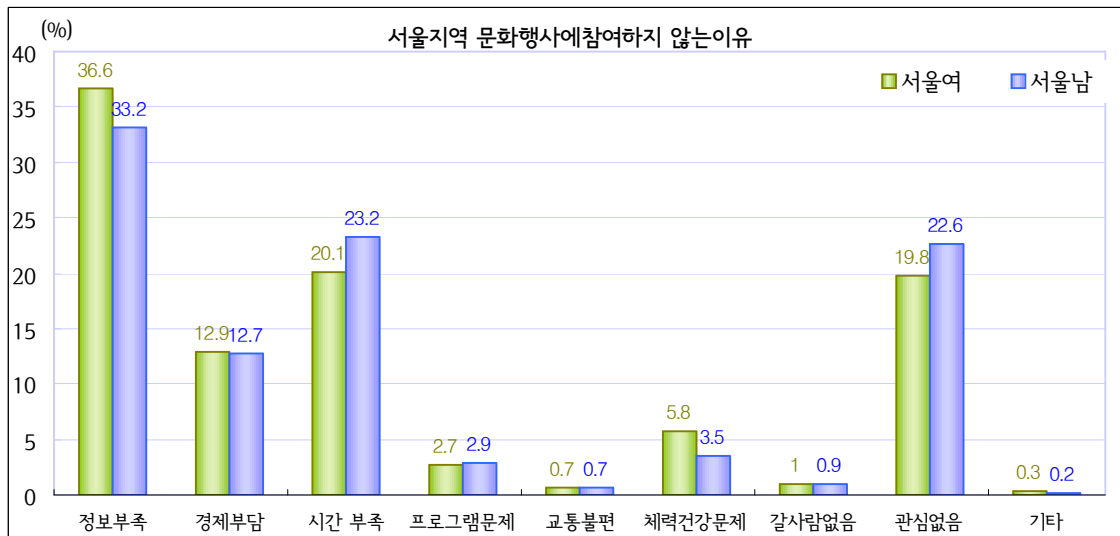
2) 김광득(2003),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155, 재인용

<그림 17>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1순위응답(주된응답)분석)

<그림 18> 서울시민들이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1순위응답(주된응답)분석)

- 지역문화행사 참여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남.

<표 4> 지역문화행사 참여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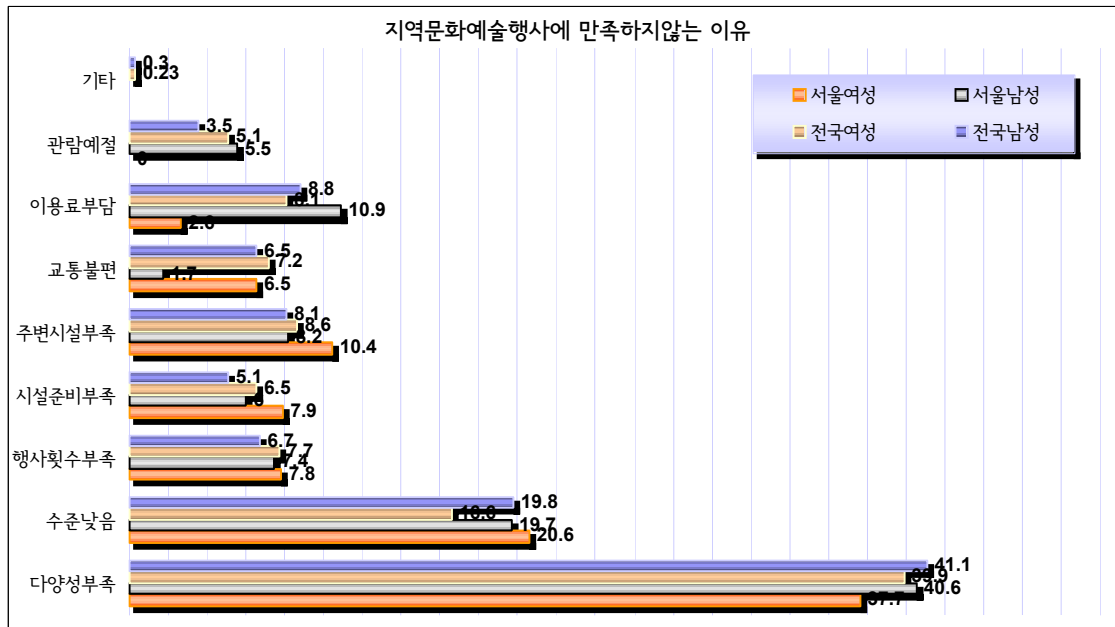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평균
여	3.21	3.15	3.19	3.27	3.32	3.55	3.26
남	3.15	3.11	3.16	3.24	3.28	3.39	3.2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지역문화행사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모두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 (여 39.9%, 남 41.1%)를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봄. 다음으로는 ‘행사나 공연수준이 낮아서’(여 16.6%, 남 19.8%)를 꼽아 전반적인 공연의 내용과 공연수준에 문제를 제기함.

○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 특성을 보면 주말과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비율이 높음(<그림 10> 참조). 따라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19>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2007), 원자료 분석(\* 1순위응답(주된응답)분석)

## V. 맺음말

- 앞서 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여가활동 현황을 파악해 보았음. 통계분석을 통해, 여성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내용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또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일, 가사, 양육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혼 취업 여성들은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모성, 가족우선 등을 강조하는 사회 통념 등에 의해 여가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시간, 비용, 능력 등 개인적 요인과 시설, 기회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됨. 여성의 경우, 위의 제약요인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더 가중되어져, 여성의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를 어렵게 함.<sup>3)</sup>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여가는 제한적이며, 여성 일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함.
- 최근의 여가 개념은 단지 일하지 않는 한가로운 시간의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여가의 활성화와 여성 제약 요인의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여가 인식의 제고, 다양한 여가활동의 지원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요구됨.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여가

---

3) 여성이 직면한 여가제약을 분석함에 있어 Shaw(1994)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이 활동함에 있어 겪는 제약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성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활동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활동 그 자체를 제약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여성의 여가를 사회통념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서 보는 시각이 있음. 김외숙(1991)은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여가장애 유형을 시간장애, 비용장애, 개인적 장애, 가족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분류하였으며, 이철화(1996)는 스포츠 활동의 종목에 따른 도시 기혼여성의 장애유형을 시간적,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장애로 분류함. 한편 Henderson, Stalnaker, Taylor(1988)는 여성의 레크레이션 참여에 일반적으로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55개 항목을 요인 분석하여 시간, 인식부족, 의사결정, 신체 이미지, 가족문제, 흥미, 사회적 부적합성, 금전부족, 기술부족, 시설 결여 등 10개 요인을 추출한 바 있음. 그 외에 자신감 결여, 기술이나 신념의 부족 등이 지적되기도 함(지현진, 2006: 18~19 재인용).



에 대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단지 “밖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휴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서울은 비교적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여가 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문화예술행사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비용부담이 적어 지역 내의 문화소외 계층의 여가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육아와 가사로 여가생활이 어려운 20~30대 기혼여성, 또 고령층여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여성의 여가제약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문화 예술행사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그 이유가 정보 부족과 관심의 부족 등으로 나타남. 또한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행사의 수준이 낮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참고문헌>

- 김광득, 2003,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 문숙재 외, 2007, 『여가문화와 가족』, 도서출판 신정.
- 문화관광부, 2007 『여가백서』.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 이수연 외, 2005, 『한국 여성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문화관광부.
- 지현진, 2006, “기혼여성의 여가 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제3호.
-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결과”. [www.kosis.kr](http://www.kosis.kr).
- 통계청, 2007, 『사회통계 조사』. 원자료.
-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www.kosis.kr](http://www.kosis.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007 여성통계연보』.
- OECD, 2008, “OECD FactBook”, <http://puck.soureoecd.org>.